이랜드 NC백화점, 현대백화점 임대 광주 진출

송원측과 5년 장기임대 계약 추진

밀리오레도 인수…지역유통가 촉각

현대백화점이 위탁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광주점(구 송원백화점)에 이랜드그룹이 진출할 것으로 알려져 지역 유통가에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현대백화점 광주점과 유통업계에 등에 따르면 현대백화점이 지난 22일 송원백화점에 대한 경영위탁계약(OMA)을 종료하기로 함에따라 이랜드그룹의 NC백화점이 송원백화점과 장기계약을 하거나 인수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백화점은 지난 1998년 송원백화점과 10년간 경영위탁 계약을 체결했으며, 2008년 이후에도 매년 계약을 연장해 총 15년간 영업을 이어왔다.

매번 계약만료 시점에서 기업을 달리해 이러한 설이 나오곤했지만 현대백화점이 이를 발표했고, 업계에서는 이미 기정 사실화돼 이랜드그룹의 광주 진출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송원과 NC백화점의 여러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송원 측은 오는 6월2일 현대백화점과의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랜드 NC백화점과 5년 장기임대 형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5년 후에 정식 매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NC백화점 측은 현재까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이번 주초 이를 공식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 측의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 광주점 진출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렵다"며 "그룹 차원에서 다음 주 초께 입장 발표를 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NC백화점은 이곳에 중저가 브랜드와 해외명품 중심으로 100% 직영하는 이른바 '한국형 백화점' 형태로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는 국내 토종 중저가 의류사업을 시작한 그룹으로 직매입 형태로 운영하는 NC백화점을 지난 2010년 개점한 이래 경기, 부산 등지에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또 NC백화점은 광주 동구의 옛 '광주밀리오레'를 인수해 오는 5월께 개점할 예정이어서 지역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NC백화점에 대한 뚜렷한 오픈일정이 나오지 않았고 매장공사도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이 향후 광주 진출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송원 측의 한 관계자는 "현대백화점이 15년째 임대 운영을 하면서 1년 단위 계약과 경쟁사들과의 매출액 차이 등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종료하게 된 것으로 안다"며 "백화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 장기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백화점 광주점은 지난 1995년도 송원백화점으로 개점했다가 1998년 경영악화로 현대백화점에 위탁됐으며 2011년 기준으로 매출 1320억원, 당기순이익 24억원을 기록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월 거래부터 취득세 환급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 감면 국회 통과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취득세 감면 연장 조치는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들어 지금까지 주택을 매입한 사람은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연초에 이미 주택 취득을 마치고 거래세를 신고 납부한 매입자는 취득세 환급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납세자가 직접 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 주택취득일은 등기일이 기준이 된다. 이미 신고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이자는 개정안 공포(시행)일 이후 환급 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대상 주택에서 신축, 상속, 증여 등은 제외된다.

이번 조치로 취득세율은 ▲ 9억원 이하 주택이 2%→1% ▲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 12억원 초과는 4%→3% 등으로 각각 낮아진다.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전국 7만9476가구, 12억원 초과 주택은 7만432가구에 달한다. 올 1분기 입주 아파트와 2분기 입주를 앞두고 있는 전국 7만2천129가구의 준공(예정)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혜택을 볼 수 있다.

또 6월 말까지 입주 가능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도 취득세 감면 수혜주로 꼽힌다.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7만5180가구 가운데 준공 후 미분양은 2만8248가구로 집계됐다. 서울에선 동작구와 마포 일대 중대형평형, 경기·인천에선 고양시 탄현, 삼송지구, 김포 장기지구, 인천 영종경제특구 등 신도시 일대에 즉시입주와 취득세 감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물량이 포진해 있다. /연합뉴스

'올 뉴 카렌스'의 차량 전면부 대시보드 모습.

넓어진 공간 운전 편의성 확 높여

기아차 '올 뉴 카렌스' 내부 디자인 공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전량 생산되는 '올 뉴 카렌스'의 인테리어 디자인이 24일 공개됐다.

오는 28일 서울모터쇼에서 신차발표회를 갖는 새 카렌스의 인테리어는 안정적인 조형미와 실내공간 최적화, 고급재질을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올 뉴 카렌스'는 차량 내부의 전면부에 인간공학적인 조작성을 배치해 운전자의 조작성 및 운전 편의성을 높였고, 대형 내비게이션 화면 및 클러스터 계기판의 정보창을 이용해 운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제공한다. 또 운전자의 손길이 닿는 주요 부분을 한층 부드러운 재질로 만들어 감성품질을 높였고, 고급스러운 실내 분위기를 연출했다.

가족 중심의 실내공간을 강조한 시트 레이아웃도 적용했다. 차량 내부 1열 시트는 버킷 타입 시트를, 2열은 슬라이딩&리클라이닝(reclining) 시트로 만들어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수납 공간 적용으로 공간 활용성을 높였다.

강력한 상품성으로 무장한 '올 뉴 카렌스'는 최근 발표한 세계적 권위의 레드닷 디자인상에서 본상(Winner) 수상작으로 선정돼 디자인에서도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 11개 中企 중남미 327만달러 수출협약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이 중남미 국가들을 상대로 327만달러 규모의 수출협약을 체결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11개 중소업체가 참여한 중남미무역사절단은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미국과 과테말라, 아르헨티나 등지의 주요 도시에서 시장개척 활동을 펼친 결과 모두 6건에 327만달러의 수출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무역사절단은 광주지역 주력 상품인 광·LED 관련제품을 비롯해 소비재와 IT·의료제품 생산업체로 구성됐으며, 현지에서 바이어들과의 단체 및 개별방문 수출상담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미국과 중남미의 중간 매개역할을 담당하는 마이애미, 그리고 과테말라시티를 상대로 의료장비, 광커넥터, 모바일 게임 등에 대한 245만불 규모의 수출MOU를 체결했다. 또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에도 분무소독기와 자동제세동기, 전기찜질기 등의 기존 바이어와 추가계약을 유도함으로써 82만달러의 수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남미무역사절단 관계자는 "무역사절단 활동은 자사의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이번 중남미 시장 개척활동을 통해 우리 지역 생산품의 우수성 홍보는 물론 틈새시장 공략을 통한 수출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왼쪽 세 번째)과 이광균 노동조합 대표지회장(오른쪽 세 번째), 개그맨 허동환(가운데)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호타이어 노사 공동 문화활동

임직원 500여명 유스퀘어 문화관서 연극 관람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지난 23일 광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노사공동문화활동'을 가졌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과 이광균 노동조합 대표지회장을 비롯해 회사와 노동조합 임원 및 간부 20여명, 광주·곡성공장 직원 및 가족 500여 명은 이날 코믹연극 '허둥구단의 바라바라'를 관람했다.

'노사공동 문화활동'은 회사와 직원, 가족이 직접 소통하고 교감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한 자리로 지난해 클래식 문화체험 '더 특별한 콘서트'를 시작으로 해마다 여는 금호타이어의 대표적인 노사화합 행사다.

이번 공연은 KBS 개그콘서트에서 '허둥 9단'을 연기한 개그맨 허동환씨가 연출과 주연을 맡은 코믹연극으로 총 2막으로 구성됐다. 회사 측은 공연이 끝난 뒤 직원 자녀에게 금호타이어 공식 캐릭터인 '또로'와 '로로'가 새겨진 무릎 담요와 인형을 선물해 의미를 더했다.

금호타이어는 올해 노사공동 문화활동을 4차례 진행하고, 4월에는 임직원 부부를 위한 정통 클래식 음악회 '힐링 콘서트'도 열 예정이다.

김창규 금호타이어 사장은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사원과 가족들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디자인센터 공예산업 육성 본격화

광주디자인센터가 24일 지역 공예문화산업을 주도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디자인센터는 지난 21일 지역 공예인과 예비창업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공예문화산업육성사업 설명회'를 갖고 구체적인 육성방안을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디자인센터는 수제공방 육성사업 등 공예문화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해 우수 공예품 개발과 공방 육성, 해외·국내 마케팅 지원으로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광주시도 '광주 수제공방 육성사업'을 통해 우수 수공예품의 마케팅과 공방 창업지원을 역점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공동브랜드(오핸즈) 인증을 통해 발굴된 우수 공예품의 국내외 마케팅, 판로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지역의 우수한 공예문화상품이 디자인과 어우러져 세계시장으로 나아가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로또복권 (제538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6	10	18	31	32	34	11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4,688,021,625	3
2	5개숫자+ 보너스 숫자일치	48,833,559	48
3	5개 숫자 일치	1,359,636	1,724
4	4개 숫자 일치	50,000	82,529
5	3개 숫자 일치	5,000	1,347,630

中企-특성화고 인력양성 중기청 150개 학교 선정

중소기업청은 기능 인력 교육과 취업을 연계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할 학교 150곳을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작년까지 중소기업 특성화고 육성 사업과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분리돼 운영되던 것을 통합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매년 2만 명 정도가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사업은 중소기업 인식 개선, 특성화고 전용 박람회, 교사·학생·기업 공동의 팀 프로젝트, 현장 교육, 멘토·멘티 제도 운영, 우수 취업처 발굴, 중소기업 취업률 등을 토대로 성과 평가 등으로 진행된다.

한편 중기청은 이번에 선정된 학교의 취업 맞춤반 운영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연합뉴스

현대삼호重 대표이사 하경진 부사장 선임

현대삼호중공업이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고 하경진(59)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하 대표이사는 지난 1977년 현대중공업에 입사한 이후 설계 및 선박연구소 총괄 중역을 역임하는 등 조선업계의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하 대표이사는 현대삼호중공업(울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에 선임됐다. 취임식은 25일 열린다. /임동률기자 exian@